

◆ 特 輯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展望

金 南 碩

啓明大圖書館長

1. 序 言

人類文化의 背景을 形成하고 있는 知識의 擴張은 人間의 個의인 能力만으로는 이를 勘當할 수 없으리만큼 發展되었고, 또한 知識은 蓄積되어 情報産業이라는 새로운 産業構造를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情報産業은 學校의 發生이 그러했듯이 情報의 過重한 増大에 따른 蓄積을 爲한 必要만이 아니고 情報의 普及에 그 原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의 中樞的인 役割을 圖書館의 重要한 機能으로 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렇게 産業化되리 만큼 重要한 位置에까지 浮上한 情報의 處理問題는 이를 取扱하기 위한 專門性을 要하고, 專門性 自體는 科學과 技術의 發達과 情報의 迅速한 要求에 副應하기 爲해서 繼續 發展될 必要性을 안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情報取扱을 主目的으로 하는 圖書館學은 오늘 變貌하는 地域社會에서 産業世界와 宇宙에 發展되는 宇宙世界속에서의 情報의 媒介機能을 成功的으로 堪當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이 情報과 社會의 發展을 爲한 遺産의 蓄積으로서 未來發展의 動機로서 그 機能을 堪當해야 하는 것이라면 圖書館學은 將次 여기에서 從事하고 成長해야 할 司書의 輩出을 爲한 使命感이 더 없이 重要하고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人間의 歷史는 經驗과 함께 始作되었고, 이러한 經驗의 始作은 人間으로 하여금 다른 動物로부터 分離시키는 새로운 役割을 堪當하게 하고 있으며, 經驗의 蓄積이야말로 人間으로 하여금 새로운 局面에서의 挑戰을 試圖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人間의 經驗 卽 知識은 새로운 生活環境에 發展시키면서 그의 社會的인 成長을 試圖하고 변화시키어 왔으나 人間社會의 本格的인 發展은 이의 蓄積에서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圖書

館의 發展은 그 社會의 文化發展과 直結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光復 30년이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期間동안 倭政治下에서 보다 쓰라린 回顧로 生覺한다면 무척 긴 期間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이루어 놓았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의 圖書館界도 解放과 더불어 自力으로 始作된 것이 오늘 날에는 이만큼 發展되어 왔다. 그 發展過程에 關해서 몇가지를 살펴 본다면 첫째로 兪한 逆境과 어려움 속에서도 圖書館 專門人들의 숨은 勞苦의 보람이 컸다 하겠고, 둘째로 보다 重要한 것은 解放前後 같은 荒蕪地속에서 오늘이 있게끔 發展되게 하고, 또 1976년에 國際大會를 誘致하리 만큼 發展한 裏面에는 지금까지 能力있는 司書를 養成한 圖書館教育機關에 몸 담았던 先輩諸位의 힘이 至大했다는 것을 느끼는만큼 그분들에게 甚深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그렇다고 30년이란 長期間동안의 發展으로 來日의 展望이 반드시 樂觀的이라고 하여 스스로 滿足하기 보다는 來日의 보다 많은 發展과 未來에 變化되어질 世界속에서의 圖書館發展에 對備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 自責하고 또 더 反省해 나감이 올바른 姿勢일 것이다.

그래서 猥濫되나마 지금까지 圖書館을 통해 느껴온 圖書館學教育에 關한 여러 現狀들을 내 나름대로 生覺하고, 또 問題性을 提示함으로서 現實에 直面한 우리들의 問題解決로 來日의 이나라 圖書館發展을 爲해 一翼을 助言하고 나아가서는 奉仕에 寄與코자하는 바이다.

그리고 本論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圖書館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인 問題를 對內的으로 把握하고, 이를 통한 問題點을 들어 이의 打開을 爲한 解決方法을 生覺해 보고자 한다.

II. 教科目名의 統一

數年間 나는 圖書館學이 學問으로서의 價値性에 對

해서 哲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 많은 論議가 된 것을 보고 아직도 圖書館에 勤務하면서 또한 圖書館學을 가르치면서 圖書館 學問에 關한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인가 늘 釋然치 않은 生覺이 든다.

모든 學問의 派生은 그것이 時代에 따라 知識의 發達과 技術文明의 發展에 依해서 多樣해지고 複雜해졌으며 具體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圖書館學도 그 根源은 人類의 發生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學問으로서의 體系를 갖추게 된 것은 20세기의 情報의 瀑發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다른 學問에 比해서 그 成立이 늦었기는 해도 아직도 學問으로서의 그 體系가 確立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擧고 있다고 하겠다.

圖書館教育機關 1975年 現在

區 分	設立年度	機 關 名	定 員
學 部	1957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30
	1959	梨花女子大學校 "	50
	1963	中央大學校 "	25
	1964	成均館大學校 "	30
	1974	慶北大學校 "	20
初 大 專 門 校	1975	漢成女子初級大學 "	30
	1971	釜山女子專門學校 "	40
	1972	崇義女子 " "	80
	1974	啓明大學併設專門 "	80
	1974	韓國社會事業大學併設 "	80
司 書 院	1965	成均館大學校司書教育院	60
計			525

우리 나라에서 具體的인 圖書館學 教育이 始作된 것을 1946年 國立朝鮮圖書館學校의 開校로 본다면 現存하고 있는 圖書館學教育의 專門的인 機關만도 11개가 되며 여기에서 每年 500餘名씩 司書가 輩出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圖書館學의 定立에 關한 올바른 理論的 根柢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學問과 우리 圖書館人들 스스로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現狀은 教科課程에서 두드러지게 表示되고 있는데 端的으로 말하면 "概論이 缺如된 學問"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一部나마 成立된 概論의 體系가 近代的인 社會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것

概論科目名과 學點

科目別	大學別				
	慶大	成大	延大	梨大	中大
圖書館學 概論	3			2	3
圖書館學 原論			3		
文獻學 概論		3			
全體專攻學點과의 比	2.3	3.3	3.9	2.3	3.1

(가나다順)

이 바로 圖書館學이나? 情報學이나? 文獻學이나?의 問題인 것이다.

위의 表는 5個의 學部 圖書館學科의 教科課程中 概論에 對한 比較이다. 學科 名稱과는 아랑곳 없이 5個의 學科中 概論의 名稱이 一致되는 것은 3個大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理論的 背景을 定立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또한 아직도 學問에 對한 懷疑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圖書館學의 教育을 擔當한 教授들에게 一末의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닐까?

分類 編目에 關한 科目名과 學點

科目別	大學別				
	慶大	成大	延大	梨大	中大
資料分類法	3				
資料目錄法	3				
資料組織練習	2	3			
古書整理法	3				
Lib. & Automation Processing	3				
資料組織法 I. II		6			
古典資料組織法		3			
分類와 目錄學				6	
古書와 特殊語資料整理			3		
分類目錄學概論					2
西書分類編目					3
東書分類編目				3	
分類概論					3
編目概論					3
資料組織論					3
古書目錄法					3
計	14	12	9	8	12
全體專攻學點과의 比					

(가나다順)

또 다른 教科科目에 對한 比較이다. 위의 表는 資料를 整理하는 分類와 編目科目의 比較인데 5個大學中 一致되는 科目의 名稱의 多様性 때문에 같은 名稱의 圖書館學科이지만 學校에 따라서는 別個의 學科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勿論 學校의 特殊性도 必要한 것이다. 그것이 學校의 學科를 結束시키는 傳統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問題는 基礎的인 바탕위에서 特殊性이 있고 學校의 差가 있어야 하겠다. 先進外國에서 大學院課程에서만 圖書館學科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基礎를 必要로 하는 學科라는 意味도 된다.

그래서 적어도 概論에서 부터 基本이 될 수 있는 學科科目名이라도 一致되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므로서 圖書館學에서 基礎가 되는 必須科目으로 여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學生들이 알고 나가야 하겠고, 이를 통한 共通된 對話가 成立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大學의 教科課程이 基礎教育의 形態로 점차

바뀌어 지고, 一般敎養敎育의 範圍도 擴大되고 있다는 것을 勘案해서라도 圖書館學科의 學問의인 理論에 바탕을 둔 一致感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學問의 發生은 반드시 發生에 따르는 動機나 母體가 있어야 한다. 圖書館學 發生의 그 첫째되는 動機는 人間이 經驗하고, 經驗을 蓄積하는데 있고, 그 둘째되는 動機는 經驗을 傳達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圖書館學 發達の 母體는 圖書館이라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圖書館學을 定義하기를 “圖書館의 諸 現狀을 研究하고 分析하고 體系化하는 하나의 科學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還元하면 圖書館의 始作은 人間의 經驗을 知識化하여 이것을 蓄積하는 場所로 始作되어 傳達하는 機能을 堪當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意味에서 圖書館은 반드시 圖書만을 保存하는 機關이 아니라 人間에 依해서 發生되어진 諸 情報를 蓄積하고 이것을 傳達하는 機能을 堪當하는 機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반드시 圖書館學을 情報學이다 文獻情報學이다 하여 時代의 變化에만 뒤쫓아가는 學問이 될 것이 아니라 圖書館이 바로 情報의 直結되는 學問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重要하리라 生覺된다. 그렇게 하므로서 情報를 動機로 하고 圖書館을 母體로 한 學問의 體系와 歷史를 維持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오늘의 情報에 重要性은 情報를 取扱하는 主體라고 할 수 있는 圖書館學뿐 아니라 모든 學問分野에서 새로운 接近을 試圖하고 있다는 것을 堪案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經營情報, 産業情報, 敎育情報 등등 모든 學問이 自己의 學問의 기초위에 情報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반해 圖書館學만이 母體인 圖書館을 버리고 情報만을 取하려는 것은 어딘지 釋然치 않은 感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基礎가 마련되기도 前에 諸學問의 情報로 吸收되지 않을까 甚히 憂慮되는 바이다.

Ⅲ. 韓國의인 圖書館學

내 것이 있어야 하겠다. 아무리 좋은 制度, 아무리 훌륭한 體制와 方法이 있다 해도 그가 屬하고 있는 社會의인 現實을 無視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스로를 위한 存在에 不遇한 것이다. 比較學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植物을 여러가지 나무에서 各各 좋은 部分만 따서 하나로 構成시켰다 한다면 이것은 稀少의 價値밖에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各各은 좋은 것일 수 있으나 全體로서의 價値는 發見할 수 없다고 하였다.

各國에서 行해지고 있는 圖書館 制度의 모든 長點만을 따서 이것을 우리 圖書館 속에 挿入만 하면 된다고 生覺한다면 이것은 持續性이 없는 하나의 奇型的인 體制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잘 되었다는 모든 體制나

制度는 그가 屬하고 있는 社會속에 位置한 圖書館의인 바탕위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制度를 그대로 集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制度를 樹立하기 爲해서 먼저 그 制度가 移植되어 살 수 있는 充分한 與件을 갖추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의 移植된 事實은 우리의 것이 確立될 수 있도록 土着化하고 成長할 수 있도록 最先의 勞力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圖書館界에서도 自覺해야 할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過去 專門人들에 依해서 成立된 成果의 結晶은 말할 것도 없이 圖書館 發展이 가져온 韓國十進分類法과 韓國目錄規則이라 하겠다. 이것은 두가지 다 資料의 整理를 爲한 指針書이다. 그리고 世界的인 DDC, LC, UDC 등 또한 AACR, CCR 등이 있는데 이것을 直接 쓰지 않고 우리의 것에 맞도록 이들에 理論을 韓國의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視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 依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에 韓國의인 것으로 韓國의 圖書館人이 모여 이미 採擇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對한 發展의 寄與가 圖書館學에서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미 數年동안 使用되면서 共通化된 指針書가 圖書館學科의 敎科課程에 크게 浮刻되지 않고 있으며, 學科의 敎科課程과 實際의 實務와는 많은 間隔을 가지고 있고, 또한 敎科의 中心의인 課題는 苦捨하고 이것에 대한 不信의 基底가 나타나고 있다는 點에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많은 圖書館에서 共通의인 規程으로 使用되고 있다는 것을 意識해서라도 이것에 對한 着實한 發展이 있도록 勞力해야 하겠다. 그리고 改訂에 있어서도 全體를 否認하는 改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이미 韓國目錄規則이나 韓國十進分類法이 나오기 前까지 많은 混沌의 時代를 겪어왔고, 또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未解決되어 있는 圖書館도 있다는 것을 堪案해서 또다시 無謀한 改編으로 困한 混沌이 다시 오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KDC와 KCR의 發行은 學校圖書館을 비롯한 韓國의 諸圖書館이 統一性 있는 目錄이나 分類體系確立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깊이 銘心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規程化되어 쓰여지고 있는 體制가 未及한 點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에 對한 補充을 爲한 部分的인 改訂을 통해서 漸次的으로 發展시키므로서 一線에서의 混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또한 理想主義的인 改訂보다는 現實과 直結될 수 있는 實務者와 理論家가 共히 認定이 可能한 範圍에서 改訂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改訂을 爲한 改訂이 아니라

即 使用에 따른 必要性에 依해서와 學究的인 研究에 依해서 問題性이 있는 것을 理論의 根據가 있게 改訂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協會를 中心한 協力を 強化해야 하겠다. 1955년에 創設된 우리 圖書館協會는 우리 圖書館人의 權益과 協力 및 紐帶를 爲해서 至大한 業績과 勞力を 쌓아온 만큼 이것은 專門의 것만도 實務者의 것만도 아닌 우리 나라의 讀書施設과 情報施設 및 一線에서 從事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또 圖書館學의 發展을 爲해서 研究와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責任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圖書館學을 擔當한 教授님들과 一線 實務者, 그리고 圖書館協會와는 반드시 긴밀한 紐帶關係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圖書館協會는 學會와 研究機關으로부터 學問的인 理論의 支援을 받아야 하고, 또 實務者들에게서는 實際에서 派生되는 諸 問題를 解決해줄 뿐만 아니라 一線圖書館으로부터는 財政的인 支援을 받음으로써 圖書館界 Center의 機能을 擔當해야 하겠고, 特히 圖書館人들의 權益을 擁護하는 行政的인 뒷받침이 되도록 勞力해야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學會와 一線圖書館과의 紐帶를 密着시키므로서 韓國的인 圖書館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機關이 되어야 하겠다.

이를 爲해서 切實한 것은 이미 輩出된 一線圖書館人들에게 繼續的인 紐帶를 強化하므로서 時代의 變化로 野起되는 一線圖書館 專門人들의 勞苦를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司書들이 母校와의 紐帶를 緊密히 가지게 해 줌으로써 一線圖書館에서는 새로운 體制를 발전시키고 學會나 學科에서는 實際의 連結될 수 있는 教育을 施行하여 現實에 適應되는 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서 來日의 發展에 繼續 前進할 수 있는 圖書館人들의 結果 Center로서의 面貌를 갖춘 協會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現實을 意識하는 教育

大學教育의 目的은 教授研究 및 社會奉仕라고 한다. 初期에 있어서 大學의 機能은 自由, 研究, 教授로서 象牙塔의인 概念에 깊게 묻혀 社會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므로 그 權威를 認定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社會變化는 大學을 통해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또한 大學은 社會變化에 知的인 核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教育의 窮極的인 目的은 社會奉仕인만큼 이를 爲해서 研究하고 教授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래서 社會와 直結될 수 있는 教育의 切實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教育은 社會에서의 適應을 爲한 基礎教育이고 지금까지의 文化繼承을 爲한 教育이며 來日의 새로운

變化에로 誘導할 수 있는 社會發展을 爲한 教育인 것이다.

司書를 教育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運營케하기 위함이며 훌륭한 圖書館 教育은 司書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適切하게 運營토록 하기 爲함이라고 Lester E. Asheim氏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圖書館 教育은 現實的인 當面한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注力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圖書館教育은 얼마나 우리의 事情과 直結되는 教育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至今까지 우리의 圖書館學 教育은 當面한 우리의 課題보다 外國의 高度化된, 어쩌면 未來的인 先進國의 機械化問題에만 急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否認할 수가 없다. 即 未來的인 것도 教育되어야 하지만 우선 먼저 우리의 것에 바탕을 둔 未來的인 것이어야 하겠다.

特히 學科 卒業生의 一線圖書館에서의 適應問題에 關해 管理者들과 종종 이야기가 오고 간다. 이럴때마다 이들에 대한 精神的인 姿勢의 問題를 擧論한다. 이의 重要한 原因은 大概의 境遇 圖書館學科를 卒業하면 管理者나 研究者로 生覺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一面 專門教育을 받은 者를 管理者나 研究者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現實에도 問題는 있지만 反面에 이를 爲해서는 오늘 우리 自身이 現實을 打開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管理者로서 實務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整理業務는 分類나 目錄 어느 하나만을 爲한 것이 아니고 整理全體를 擔當해야 하고 奉仕는 質間단 處理하는 參考司書가 아니라 貸出도 兼할 수 있는 即 閱覽業務 全般을 擔當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韓國圖書館의 當面한 現實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에 處한 圖書館에 充實히 適應하는 한편 來日의 變化에 臨할 수 있는 精神姿勢를 가지도록 教育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問題點은 奉仕者로서의 마음가짐이다. 奉仕는 司書와 閱覽者와의 關係에 앞서 職員相互間에 融化를 爲한 精神力이 갖추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人의 奉仕는 理解하고 “Understand” 하는 奉仕이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圖書館學科 卒業生과 既成 圖書館職員間에 갈등은 우리 圖書館學의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가 實感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既成 圖書館 體制에 適應을 爲해서 이미 갖추어진 그 圖書館의 體制를 理解해야 하고, 다음에 맞지 않은 背景을 알아서 그 體制를 認定하고 時代에 뒤떨어진 體制나 새로운 體制를 爲해 充分한 理論의 뒷받침과 說得力을 통한 漸次的인 改善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갖추어진 體制를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教育의 바탕과 漸次的인 새로운 試圖을 위한 精神的인

마음가짐을 위한 教育으로 既成體制의 理解를 통한 圖書館發展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미 變化되고 있고, 變化되어질, 또 變化시켜야 할 훌륭한 圖書館教育의 觀念이 무엇이며 이것은 어떠한 基本的 計劃下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深刻하게 考慮해 봐야 할 것이다.

V. 資格取得經路의 一元化

우리의 圖書館界도 이제는 完壁한 體制를 갖춘만큼 이 體制를 可及의 確固히 할 때가 됐었다고 생각된다. 過去 數年間 圖書館 發展에 있어 人材養成에 寄與한 圖書館教育의 擔當機關과 教育者들의 勞苦를 깊이 感謝스러야 하겠고, 또 解放과 더불어 우리것으로 發展된 圖書館이나 또는 發展시켜야 할 圖書館에 必要한 人材를 여러 機關에서 많은 種類의 講習會를 통해 輩出시킨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를 提起할 수 있는 것은 現今까지 輩出된 人材만으로도 當面한 現實打開을 充分히 할 수 있는 量的 年輪의 水準이 到達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專門學校課程의 圖書館學科가 年年 創設되어 準司書養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講習에 依한 資格取得制度는 止揚하고 司書의 養成은 教育을 專門的으로 담당하고 있는 圖書館學科에 一任하므로서 司書에 對한 資質을 높이고 學問의 基礎와 實際가 一致될 수 있는 機能을 가지도록 努力해야 하겠다.

그리고 司書教師(學校圖書館의 司書教師)의 問題도 教師 또는 事務職으로서의 司書教師가 아니라 圖書館 專門職(教師)으로서 圖書館을 擔當하는 人的資源을 構成하므로서 沈滯一路에 있는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통한 이나 圖書館界의 成長이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爲해서는 行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고, 또 教師와 同一한 待優와 昇進의 機會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이의 採用 또한 義務化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至今까지 存續하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司書養成 制度는 이미 주어진 資格者와 司書들에게 再教育의 實務連續機關으로 活用되어야 하겠고 이를 爲한 教育도 實務者거리의 教育이 아니라 研究와 教授하는 教育機關의 專門人들에의 積極인 參與를 통한 教育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變化에 適應하고 또 이를 통한 새로운 體制의 圖書館을 理解하는 同時에 情報世界속에서의 圖書館人 本來의 使命과 나아가서는 새로이 變化되어가고 있는 社會體制속에 繼續 適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와같이 制度的인 資格取得의 統一性을 期함으로써 資格基準을 높이고, 또한 가장 많은 變化에 편승하고

있는 圖書館은 再教育의 機會를 最大限度로 活用하여 圖書館의 重要性和 이의 發展을 期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서 奉仕의 範圍를 擴大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教育情報機關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해야 하겠고 情報의 提供을 爲한 情報源으로서의 機能을 擔當하도록 해야 하겠다.

V. 結 論

이상 말한 바와 같이 韓國 圖書館學教育의 展望을 五個單元으로 나누어 生覺해 왔는데 結論인 分析을 간추려 본다면 대개 6가지를 들 수 있다.

1) 學科名稱상의 뚜렷한 統一化가 있어야 하고 定立된 기초위에 새로운 變化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므로서 다른 隣接學問에 接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圖書館學 教育은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學生들이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現實인 環境을 意識해 하고 또 現社會에 直結될 수 있도록 教育하므로서 未來를 展望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3) 圖書館學 教育機關은 協會의 知的인 協會機關으로서 그 機能을 擔當해야 하겠다. 協會의 構成이 우리나라 圖書館人들 모두에 依한 것이라면 圖書館 教育機關은 協會의 知的인 研究機能과 一線에서의 問題解決을 爲한 補助機關으로서의 機能 또한 새로운 體制의 導入과 그의 試圖를 爲한 기능을 擔當하는 機關이기 때문이다.

4) 基礎資格을 爲한 圖書館 教育은 專門的인 教育機關에 依存해야 하겠다. 圖書館學 教育機關은 大學이나 專門圖書館뿐 아니라 學校圖書館의 司書教師 養成에도 注力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學校圖書館 發展으로 大學이나 專門機關, 一線 職場에서의 圖書館 利用을 爲한 知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 練修教育을 強化해야 하겠다.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時代的인 變化에 가장 敏感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은 變化를 가져오고 있는 情報傳達機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國立中央圖書館의 司書教育은 文教部와 各大學 圖書館學科 教授와 圖書館協會 이 三者가 主催가 되어 有資格者들에게 2年 乃至 3년에 1回 程度의 練修教育을 施行하므로서 새로운 變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6) 우리나라에 맞는 圖書館의 定立과 아울러 우리 文化와 現實에 맞는 韓國的인 體制를 確立하고 이것에 對한 研究를 持續하므로서 世界的인 圖書館學의 發展에 韓國圖書館學의 位置를 國際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에 添言할 것은 筆者의 論考가 우리나라 圖書館學發展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未洽한 拙稿를 끝맺는다.